

한국 화전농업의 발달과 산지촌락의 형성

목한석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서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지 개간이 언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촌락이 개척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산지 개간은 근본적으로 화전 농업과 관련을 갖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화전 농업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남아 있는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화전의 분포와 그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지역을 선정하여 화전과 관련한 산지 개간과 촌락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지역으로는 오대산 부근을 선정하였다. 오대산 부근 일대는 평균 해발 고도 500m로 산간 고지대이다. 이 곳은 고도가 높아 일찍부터 경지개척이 일찍 이루어지기는 곤란하였다. 오대산 월정사 부근의 사하촌(寺下村)이나 평해역로(平海驛路)를 따라 분포한 역촌이 촌락개척의 최전선(frontier)이었다. 오대산 부근 일대는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상 강릉대도호부, 횡성현, 홍천현에 속함으로써 산간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강릉의 지배를 받았던 특이한 지역이다. 오대산 부근 일대의 산지 개간과 촌락의 형성을 야외조사에 의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¹⁾.

2. 한국 화전농업의 발달

1) 화전 농업의 발달

조선시대 초 『농사직설』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비법의 발전과 작부방법 등이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전면적은 꾸준히 늘어갔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계속되는 인구증가나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농경기술의 한계, 토지제도의 문란 등을 꼽을 수 있다. 거의 전국적으로 연1모작의 상경농법이 정착되어 가던 조선중기에 강원도의 산간지대에서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 1~2년 경작하다가 지력이 쇠퇴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증보문헌비고』에도 전국의 경작면

1) 오대산 부근 일대의 향촌사회연구는 1987년의 집중적인 야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의 행정구역 별 주요 면담자와 연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암면 황계리 김갑경(73)·이기황(70), 유천리 김근수(57), 호명리 김봉식(76), 용산리 김달식(74)·이종문(60)·이해인(64)
방림면 계촌리 박수극(52)
용평면 백옥포리 하찬규(72), 속사리 김복규(58)
진부면 하진부리 김진옥(78)·홍경의(52), 병내리 김종해(84), 간평리 이성룡(75), 마평리 이기현(72), 거문리 김진영(47)
봉평면 평촌리 이승준(55)·곽희수(51)·황보한·박광신(64)·신두선(60), 면은리 마상옥(45), 진조리 황경남(46), 무이리 추성엽(65)·김선모(72), 원길리 강두영(86)
둔내면 하동리 안동률(50), 영광리 최선홍(66)·이낙선(63), 조항리 안병국(56), 두원리 정봉해(66), 현천리 윤복규(56), 유용리 정태연(61), 지포곡리 신도선, 둔방내리 한상국(55), 석문리 이병칠(64)·이동연(69)·김용식
청일면 갑천리 김영철(52), 고시리 고준수(44), 신대리 김종운(64), 유동리 정상균(60), 충당리 원동묵(62)·김용기(69), 속설리 김영환(50)
서석면 마암리 김진만, 어촌리 이낙구(65), 점산리 고창수(59), 생곡리 이수동(68), 풍암리 이충섭, 청량리 최기선(76)·박범철(53), 수하리 이의명(41)·변성환(75)
내면 자운리 이강윤(62)·탁현영(57)·전광종(59)·김종은(70), 창촌리 김학수(89)·김진국(66), 방내리 장달근(63), 광원리 박 범식(71), 명개리 최태원(71)
대화면 하안미리 조병준(69)·김만기(67), 대화리 위진주

적을 기록할 때 다음과 같이 화전면적이 기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은 화전면적은 토지 납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화전면적이 평전의 것과 비슷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대단히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기가 「농포문답」에서 화전의 수가 모두 5,60만결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당시의 화전면적과 비교해 볼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기록인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농업기술이 발전해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심화되고 생산력이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전을 개간, 경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과중한 역을 피할 수 있었다든지, 평전에 비해 세율이 매우 낮았다던가. 적은 비용과 노동력을 들이고도 쉽게 개간할 수 있으며 그의 가경지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궁방, 영위문이나 군·현·읍·진 등의 각급 관청을 중심으로 한 양반 관료나 부호, 지방 수령들도 화전을 개간했는데 이들은 주로 기존의 전답을 겸병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토지소유권에 따른 분쟁이 자주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인구 증가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증가된 인구를 부양할 만한 농업기술이 더 이상 진보되지 않는 가운데, 다모작에 이른 산전이나 평전도 모자라 산간 깊숙히까지 화전농업에 의한 경지개척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피난처로서의 화전 개척은 지역적인 문제인 것이다.

결국 조선후기나 일제시대에 조사 보고된 화전 즉 화전농업은 열대, 아열대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화전농업이 전파되어 온 것이건 곡물의 전래에 따른 이차적인 변형이건 간에, 이것이 건우기가 뚜렷한 한반도의 온대습윤기후에 맞게 적응하여 보다 발전된 휴한농법이나 윤작기술을 받아들인, 하나의 농경방식인 셈이다.

한국의 화전농업은 과거 보다 발달한 농경기술을 도입하기 이전 선사시대에 동남아시아 육도 탁월형이나 육도근재형 화전농업과 깊은 관계를 가졌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전역의 전통적인 화전 윤작 형태는 구주산지나 충승·입장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거의 같다. 한국의 화전농업이 정주성이 강한 것과 같이 일본 중에서도 화전경작을 이동경작(shifting cultivation)과 동의어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주거가 정착되고 촌락의 문화가 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양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화전 경영 도구도 가래를 일찍부터 사용해 왔다고 하므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화전농업 농구인 굴봉과 서로 비교된다.

2) 화전과 화전민의 분포

열대 화전농업이 온대 습윤인 한반도에서 적응하여 변형되고 보다 발달된 농업기술을 받아들인 한국의 화전농업은 일본과 서로 일치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한반도 내에서 그의 분포패턴을 찾아보고 어떤 유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화전면적과 화전민 인구를 가지고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 화전면적과 인구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화전의 속성상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을 수 없으나, 조선총독부가 1924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 면적과 분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순화전과 숙전·화전의 병경 면적을 보면 순화전면적이 141,804 정보, 화전호구 65,265호, 312,436인이며, 화전과 숙전을 겸하는 것이 면적 260,196정보, 164,778호, 837,705인 이다. 이들을 합친 총면적은 402,001 정보, 총화전호수는 230,043호, 인구는 1155,141인에 달하였다. 도별면적은 평안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도의 순이었다.

또한 당시 화전경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낭림산맥 및 그의 서사면과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최고산지대가 하나요, 낭림산맥의 지맥인 묘향산맥과 언진산맥 사이의 산악지대가 두번째이며, 태백산맥 일대가 세번째이다. 이 중에서 맹부산(2,214m), 회색봉(2,185m), 연화산(2,355m), 백암산(1,823m)을 잇는 낭림산맥 및 개마고원 일대가 가장 심하였다. 강원도는 광주산맥과 태백산맥의 접경지대와 오대산(1,563m), 태백산(1,546m)을 잇는 고위평탄면의 두 가지 핵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화전면적의 이러한 분포는 화전민인구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낭림산맥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역삼각형 꼴로 화전인구 1만명 이상의 집중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강원도는 평창, 정선 일대를 중심으로 해 주변지로 갈수록 점점 화전인구가 감소해 진다. 또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일대가 해발고도 1,500m이상의 산악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화전면적 5천 정보, 화전민 인구 5천명 이하의 화전경작 회소지역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화전면적 2만 정보이상 되는 군들을 뽑아보면 장진군(175,560) 강계군(104,300) 회천군(85,680)이 수위집단이며, 삼수군(56,528) 성천군(51,507) 초산군(50,420) 등이 중간 규모이고, 영원군(25,328) 영변군(22,984) 평창군(21,244)이 최하위 집단이다.

그런데 한반도 전체로 보아서는 화전농업의 소밀지대로 신의주와 포항을 잇는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서와 이동으로 양분할 수 있다. 남부와 중부 및 북부지대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북부지방에 있어서 작물경작기간이 짧고 농업에 불리한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화전민이 분포하게 된 것은 남쪽보다 화전을 할 수 있는 삼림이 많았고, 남쪽보다 관청에서 화전경작을 덜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지형·인구밀도가 일본 화전의 지리적 분포와 관련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이 한반도의 남부 또는 신의주·포항 이서지역은 인구가 조밀해 굳이 조방적인 화전농업을 할 필요가 없어 화전경작이 적었거나 일대침략에 따라 화전면적이 새로 생겨났다고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일본 시코쿠에 있어서 화전이 표고 1,000m를 상한으로 하고 500~1000m사이에 현저하게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해석이 그릇될 수도 있다.

아마 신의주·포항 이남지역이 해변을 따라 평야가 펼쳐져 있고 강수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대소하천이 서남해로 유입하여 일찍부터 화전에 의한 경지개척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사료된다. 이는 산지토양이나 식생, 역사적인 조건, 임업 등을 고려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특히 남부지방은 신경을 엄청히 막았기 때문에 그 결과 비교적 유망성이 적어지고 토질이 좋고 재력이 있는 경우 숙전민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반해, 북부지방은 지력이 감퇴함에 따라 극히 유망성이 심해졌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제시대의 화전이 조선시대로부터 경지개척상 그 연장선 위에서 증가된 것이 아니라, 일대의 식민지 농업정책, 이른바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영농합리화' 등으로 인해 농촌에서 쫓겨나고 도시에서도 수용되지 못한 인구가 호구책을 얻기 위해 입산해 이룩해 놓은 것임을 유의할 때 이러한 화전면적과 인구의 분포는 보다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적었던 화전의 지주소작 관계가 조선총독부의 화입금지정책과 교육령의 대부정책에 의하여 크게 확대된 사실 역시 화전경영구조의 지역적 차이를 설명할 때 주의해야 할 일인 것이다.

3. 산지 개간과 촌락의 형성

1) 18세기 이전의 촌락 개척

오대산 부근 일대에서 가장 인접한 군현은 강릉, 횡성, 홍천 등이므로 이들 군의 토성으로 주읍에 살고 있던 강릉 김, 강릉 최, 강릉 박, 강릉 곽, 강릉 함이나 홍천 피, 홍천 변, 홍천 용, 그리고 횡성 추, 횡성 고, 횡성 조, 횡성 윤, 횡성 황 등의 향촌 지배세력이 오대산 일대와 거리 상 가까워 이들이 우선적으로 오대산 부근 일대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성-평해 역로가 운교역, 방림역, 대화역, 진부역, 횡계역을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역촌(驛村)과 오대산 월정사 아래의 사하촌(寺下村)이 일찍 형성되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촌락의 확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해발 500m 이상의 고산지에 씨족들이 일찍부터 터를 잡고 살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촌락에 최초로 이주해온 성씨 기록자료를 토대로 할 때, 이 지역은 17세기 초에 촌락이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호명리의 경주 김(1690년경), 거문리의 연안 김(1639년경)·전주 이(1648년경), 봉평리의 밀양 박(1647년경)·현풍 곽(1654년경)·평해 황(1635년경)·신천 강(1667년경), 안미리의 강릉 김(1565년경)·한양 조(1620년경), 화동리의 순흥 안(1650년경), 석문리의 경주 김(1614년경)·원주 이(1619년경), 둔방내리의 청주 한(1664년경), 조항리의 죽산 안(1640년경), 내면 1리의 전주 이(1627년경)·밀양 박(1650년경), 내면 2리의 김영 김(1649년경), 유진리의 우봉 이(1684년경)·전의 이(1622년경), 생곡리의 전주 이(1682년경) 등이 오대산 부근으로 이주해온 것이다.

이들 씨족들은 강릉 김, 원주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동 이외의 타도 군현을 본관지로 하고 있다. 16세기까지 평해 황(강릉, 춘천), 청주 한(원주, 평해), 경주 김(김화, 양양), 전의 이(양양, 평해), 순흥 안(평해, 춘천), 신천 강(강릉), 현풍 곽(울진) 등이 관동으로 이주해 왔으므로, 이들이 17세기 초 이래 오대산 부근으로 이주하는 데에는 거리상 유리했을 것이다. 특히 밀양 박은 고려시대에 횡성으로 이주해 왔으므로 봉평리나 내면 1리의 밀양 박의 경우는 사실상 횡성을 기점으로 하여 2차로 이주해온 씨족이었다.

이들은 각자 그들 가계를 중심으로 자연촌을 형성해 나갔다고 할 때, 그 수는 많지 않아 17세기에는 리의 분화가 심화되지 않았고 대개 도암리, 진부리, 봉평리, 대화리, 안미리, 방림리, 운교리, 둔내리, 내면리, 서석리라고 하는 행정단위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의 분포를 보면 해발고도라는 자연적 조건이 취약입지에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방림-횡계를 잇는 역로와 둔내-구두미재-봉평을 잇는 소로가 씨족의 이동과 촌락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이러한 교통로의 분포로 보아 원주-안흥을 잇는 역로와 원주-둔내-봉평-진부-횡계-강릉을 잇는 소로를 중심으로 하여 촌락이 먼저 개척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둔내에서 봉평에 이르는 통로는 강릉을 중심으로 한 맥곡과 춘천을 중심으로 한 예곡이 서로 각축을 벌인 동서 문화 접촉의 통로였고 구두미재의 태기산은 이에 관련된 전설이 많이 남아 있다. 대관령 또한 고려 태조 19년(서기 936년) 왕순식이 이끄는 강릉지방의 군사가 후백제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 넘었던 고개이다. 17세기에 형성된 이들 10개 리 중에서 도암리, 진부리, 대화리, 안미리, 방림리, 운교리는 역촌의 성격이 강하였고 내면리, 서석리는 중앙 정변을 피하여 은둔을 하기에 적합한 피난민의 개척촌이었다. 많은 씨족들이 집중하고 있는 봉평리, 둔내리는 태기산을 사이에 두고 입지한다. 태기산은 동해안 문화지역과 내륙 중부 문화지역의 경계를 이루며 명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역촌 이외에 오대산 부근에서 씨족들이 개척한 촌락은 강릉부, 홍천현, 횡성현 등 소속 군현에서의 인구증가 압력에 의한 토성들보다는 외지의 속성집단이 풍수지리상의 길지를 찾거나 중앙 왕조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이동함으로써 개간이 이루어진 성격이 강하였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단종복위운동과 관련된 김문기의 6대손이 홍천으로부터 강릉의 내면으로 피신차 이주해 온 내면 2리의 김령(金寧) 김을 들 수 있다.³⁾

18세기에 이르게 되면 도암리의 연안 김(1736년경)·김해 김(1720년경), 속사리의 김영 김(1736년경), 봉평리의 진주 하(1787년경)·영월 신(1770년경), 면은 리의 목천 마(1738년경)·창원 황(1790년 경), 대화리의 장흥 위(1741년경), 계촌리의 밀양 박(1710년경), 마여음리의 김영 김(1733년경), 자포곡리의 영월 신(1700년경), 우용리의 남양 홍(1755년경), 현천리의 파평 윤(1710년경), 춘당리의 경주 김(1754년경), 갑천리의 김해 김(1744년경), 유평리의 청주 정(1753년경), 고시리의 횡성 고(1783년경), 신대리의 김해 김(1715년경), 내면 1리의 광산 탁(1793년경), 수하리의 전주 이(1796년 경)·원주 변(1720년경), 생곡리의 횡성 고(1780년경) 등이 오대산 부근 일대로 유입하였다.

2) 18세기 이후의 촌락 확대

18세기에 정착한 씨족들은 원주 변과 횡성 고가 인접한 횡성현의 청일면, 홍천현의 서석면으로 이주해 온 것을 제외하고는 관동 이외의 타관에서 이주해온 성씨들이다. 변과 고 이외에 이들이 관동 내에서 2차로 이동하여 온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피하여 산간 고지로 피신해 왔다.

또한 도암리 송정의 연안 김씨 가계는 광해조에 정선으로 피난해와 은둔하면서 차츰 자손들이 오대

-
- 2) 봉평리에서 구북령을 넘어 생곡리로 통하는 길은 강릉이나 원주에서 홍천으로 가는 샅길이었고, 또한 하진부역에서 월정사로 가는 소로 중에서 방아다리 약수터를 지나 내면 광원리에 이르는 소로는 진부를 지나 속사리에서 내면을 넘는 해발고도 1,100m의 운두령보다 쉬웠다.
 - 3) 김령 김씨의 일파가 경상도 상주로부터 홍천으로, 다시 홍천읍에서 내면으로 피신차 이동하는 경로를 밟았고, 그후 내면 2리를 중심으로 노양목, 새목, 큰한동, 원당골 등으로 거주지 확대가 이루어졌다.

천을 따라 진부로 넘어간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강릉도호부의 내면과 정선군 북면은 17세기와 마찬가지로 중앙 정계의 피난지로 알맞았다. 전란과 당쟁으로 말미암아 산간지의 개척은 18세기에 본격화되었다.

이미 17세기에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던 곳의 인근에 터를 잡거나 새로 개척하여 그들은 촌락을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대개 2, 3개의 씨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2, 3개의 자연부락이 리라고 하는 행정단위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들 리가 모여 나중에 면을 형성한 것이다. 그리하여 도암리는 도암면, 하진부리와 거문리는 진부면, 대화리·안미리·방림리·운교리는 대화면, 둔내리는 둔내면, 내면리는 내면, 서석리는 서석면으로 되었다. 둔내면의 경우는 9개 리가 합쳐져 면이 된 현상이 뚜렷하였다.⁴⁾ 그 분화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둔내면이 17세기에는 둔내리였음이 확실하다.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 초에 강릉도호부의 기풍방(岐豊坊)으로 불리었던 봉평면은 군사적인 요지였다.⁵⁾ 17세기까지만 해도 평창강의 지류인 홍정천 중류 양안에 형성되어 있던 충적지의 작은 계곡들, 즉 본동, 장촌, 황서방골, 상포항, 북길동 등에 밀양 박, 평해 황, 신천 강, 현풍 곽 등이 각각 산재하며 봉평리를 이루고 있었다. 18세기에 와서는 씨족의 이입과 인구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리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영월 신씨가 북길동의 대안과 부드래골에, 진주 하씨가 백옥포와 의풍포에 이주하였고, 목천 마씨와 차원 황씨가 홍정천에서 상당히 떨어진 삼동가, 길음동, 서문동의 자연부락을 개척하였다. 이들 목천 마씨와 창원 황씨가 중심이 되어 개간한 촌락을 면온리라 하며, 18세기에는 이들 봉평리와 면온리를 합해 봉평면으로 일컫게 되었다.

따라서 17세기까지 강릉부, 횡성현, 홍천현의 리에 불과했던 도암리, 진부리, 대화리, 봉평리, 내면리, 북청일리, 갑천리, 둔내리, 서석리 등은 18세기에 들어와 각각 도암면, 진부면, 대화면, 봉평면, 내면, 북청일면, 갑천면, 둔내면, 서석면으로 그 거주 범위와 호구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18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촌락의 확대와 리의 분화는 진부-방림의 역로와 둔내-봉평의 소로를 따라 계속 진행된 한편, 500m 이하의 저평지인 둔내면·청일면·서석면에서 인구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역로와 소로를 따라 인구가 분포한 상진부리, 속사리, 신리, 면온리 등은 교통로를 따라서 형성된 전자의 예이고, 비교적 저지대의 살기 좋은 곳에 입지한 마여미리, 자포곡리, 우용리, 영랑리, 현천리, 속실리, 갑천리, 고시리, 신대리 등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홍천강의 지류인 내촌천을 따라 수하리, 생곡리 등으로도 인구가 유입하였다.

당시의 호구 분포를 살펴보면, 방림-횡계의 역로 부근에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산간지의 개척은 역로가 중요한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거문리 285호, 속사리 160호, 봉평리 200호, 도암리 120호, 면온리 160호, 신리 101호, 대화리 172호, 안미리 242호, 방림리 106호 등이 그것이다. 내면과 봉평면, 진부면은 500m 정도의 동일한 고위 평탄면임에도 불구하고 리 별 인구가 50~100호씩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역로의 유무에 기인한다. 내면 1리는 151호, 내면 2·3리는 각각 65호, 120호이다.

해발 고도 500m 이하를 차지하는 둔내면, 북청일면, 갑천면은 50호 내외에 불과한 리가 많다. 화동리 51호, 마여미리 33호, 석문리 31호, 자포곡리 38호, 군이곡리 40호, 우용리 63호 등이며, 울동리 20호, 유동리 54호, 춘당리 25호, 속실리 30호, 갑천리 104호 정도이다. 이들 3개 면이 전체 호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리의 분화가 촉진되어 대화면, 진부면, 봉평면, 내면, 도암면보다 리수가 많은 것은 씨족의 이주와 명산이란 풍수지리가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서석면과 청일면에 리의 분화가 계속 촉진되고, 600m 이상의 경우에는 도암면에 씨족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한 정도였다. 횡계리의 봉산 이(1887년경), 도암리의 연안 김(1871년경)·영천 이(1863년경)·해주 최(1836년경)·김해 김(1828년경), 동구리의 전주 이(1852년경), 무이리의 추계 추(1867년경), 속실리의 김해 김(1825년경), 내면 1리의 여양 진(1873년경)·경주 김(1872년경), 청량리의 밀양 박(1843년경) 등이

4) 17세기 경 순흥 안씨가 무사골·정문거리애, 경주 김씨가 선재들에, 원주 이씨가 판관 터·꽃벼루애, 청주 한씨가 샘골·선락동에, 죽산 안씨가 새목·추동에 자연부락을 이루어 흩어져 살다가, 18세기에 들어와 한양 조씨가 무사골로, 김영 김씨가 상마암으로, 영월 신씨가 상자포와 하자포, 영일 정씨가 땅중무로, 파평 윤씨가 윗가무내로 이주해 와 둔내면은 9개 리로 분화되었다.

5) 기풍방(岐豊坊)의 '岐'는 태기산(泰岐山)을 말한다.

이들이다.

도암면에 정착한 씨족들은 대부분 평안도와 황해도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로서 원래 거주했던 곳과 지형·기후조건이 비슷하여 이 곳 산간지로 이주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씨족은 정감록을 믿고 남하하였다고 한다. 도암리 영천 이씨의 경우 1863년경 정선군의 접경지인 봉산·용산을 피난처로 믿고 선조들이 이주해 왔다. 이는 물론 집안에 대대로 구전되어 오는 설화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1912)에 이르러서는 봉평면, 진부면, 도암면, 내면을 중심으로 한 해발고도 500m 이상의 고지대에 많은 인구가 유입해와 리의 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는 도암면과 내면에서 면리제가 가장 뒤늦게 실시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봉평면의 경우 19세기까지 2개 리에 불과하던 것이 1912년 이후에는 창리, 평촌리, 북길리, 덕거리, 진조리, 무이리, 포항리, 유포리 등 10개 리로 증가하였고, 진부면 또한 5개 리였던 것이 간평리, 탑동리, 척천리, 두일리, 상월오개리, 신기리, 마평리, 수항리, 화의리, 막동리, 장전리, 이목정리, 도사리, 노동리, 용전리, 장평리 등 20개 리로 급증하였다. 이는 그만큼 봉평면과 진부면이 새로운 개척지로서의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데 기인한다.

도암면의 경우는 18세기까지 2개 리에 불과하였던 것이 1912년경에 이르면 자연부락과 리가 혼재하게 된다. 도암면에는 의야지, 황계리, 거래지, 노동, 대기리, 도암리, 수하리, 유목정, 호명리, 미면리, 구숙리, 백일동 등이 있었다. 내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면과 도암면이 가장 늦게까지 개척이 진행된 면이다. 내면은 자운리, 조항리, 하북곡리, 소한리, 원당리, 광원리, 생둔리, 울전리, 가진포, 미산리, 여차동, 방내동, 성내동, 용연동 등 2개의 작은 면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1917년경 명개리, 광원리, 창촌리, 울전리, 방내리, 자운리 등의 6개 리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20세기 초 리의 분화와 촌락의 확대는 1960년대까지 계속되어 기존의 리는 법정리로 승격되고 다시 그 아래에 행정리로 세분되었다.

이렇게 깊숙한 고산간지에까지 개척이 이루어진 것은 일제 초의 토지조사사업과 신품종 등 농업기술의 발달에 연유하였다. 즉 일제 초 평지농토에서 쫓겨난 수많은 농민들은 화전으로 농토를 개척할 수 있는 산림지로 이동하였고, 고산간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이 보급된 덕분이었다. 이들에 의해 개척된 촌락은 대개 3~4대 정도의 역사를 갖는 씨족이 최고이며 조부대에 이주해온 씨족이 대부분이다.

4.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 화전농업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화전의 분포와 그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오대산 부근 지역을 선정하여 화전과 관련한 산지 개간과 촌락의 형성 과정을 야외 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화전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산림 감독이 소홀한 조선 후기에 와서 화전 면적이 급증, 일제시대에는 최전성기를 보여주었다. 오대산의 깊숙한 고산간지에까지 개척이 이루어진 것은 일제 초의 토지조사사업과 신품종 등 농업기술의 발달에 연유하였다. 일제강점기 초 평지농토에서 쫓겨난 수많은 농민들은 화전으로 농토를 개척할 수 있는 산림지로 이동하였고, 고산간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이 보급된 덕분이었다. 이들에 의해 개척된 촌락은 대개 3~4대 정도의 역사를 갖는 씨족이 최고이며 조부대에 이주해온 씨족이 대부분이다. 즉 고산지에서의 산지 개척의 역사가 100년 정도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권 149)
- 「경세유표」
- 「농포문답」
- 「성종실록」
- 「화전의 현상」(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15집)
- 「화전정리사」(임정연구회편)